

찬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 1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절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절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 1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나
- 2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웃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 3절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 4절 너는 먼 저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설교본문 시편 1편 11-19절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디딤돌교회
www.dddch.or.kr/

함께여서 행복한 추석

한가위 가정예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63편 1절)

가정에배 순서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부터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 하겠습니다."

묵도 _____ 다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올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 128편 1-4절)

찬송 _____ 다같이

찬송가 559장 (통일찬송 305장)

기도 _____ 가족중에서

말씀나눔 _____ 인도자

시편 1편 1-6절

기도 _____ 인도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주시어
늘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사웁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_____ 다같이

찬송가 588장 (통일찬송 307장)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이것으로 추석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가정 (시편 1편 1-6절)

시편 1편은 본문이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1~3절,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은 그에 대조되는 악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은 시편 1편의 전체적 정리가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복 있는 가정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자의 자세(1~3절)

1절 말씀을 살펴보면, (1절 읽고)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며 죄에 점점 빠져드는 인간의 습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따라다니는 정도였는데, 따라다니다 보니 이제 그 길에 들어서 있고, 길에 딱 하니 들어서 있다 보니 아예 자리에 눌러앉은 모습이지요. 이것이 죄의 특성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내가 죄에 눈을 돌리는 순간 내 안에 죄가 점점 커지는 모습과, 죄는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1절이 '하지 마라'하면서 복 있는 자의 소극적 자세를 이야기했다면, 2절은 '해라' 하면서 복 있는 자의 적극적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즐거워해서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한다.'는 말의 의미는 '소리 내어 읊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리 내어 읽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3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의도적으로 냇가에 심어 놓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복되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2. 그러나 악인들을 그렇지 못합니다(4~5절)

복 있는 자와 대조되죠.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어져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악인은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날아가 버릴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겨는 성경에서 악인, 심판받을 자로 표현되는 쪽정이죠. 이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깰 수가 없습니다.

3. 서로 다른 결과(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지만 의인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여러분 1, 2절의 복 있는 자의 대열에 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의 적극적 자세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3절과 같은 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며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